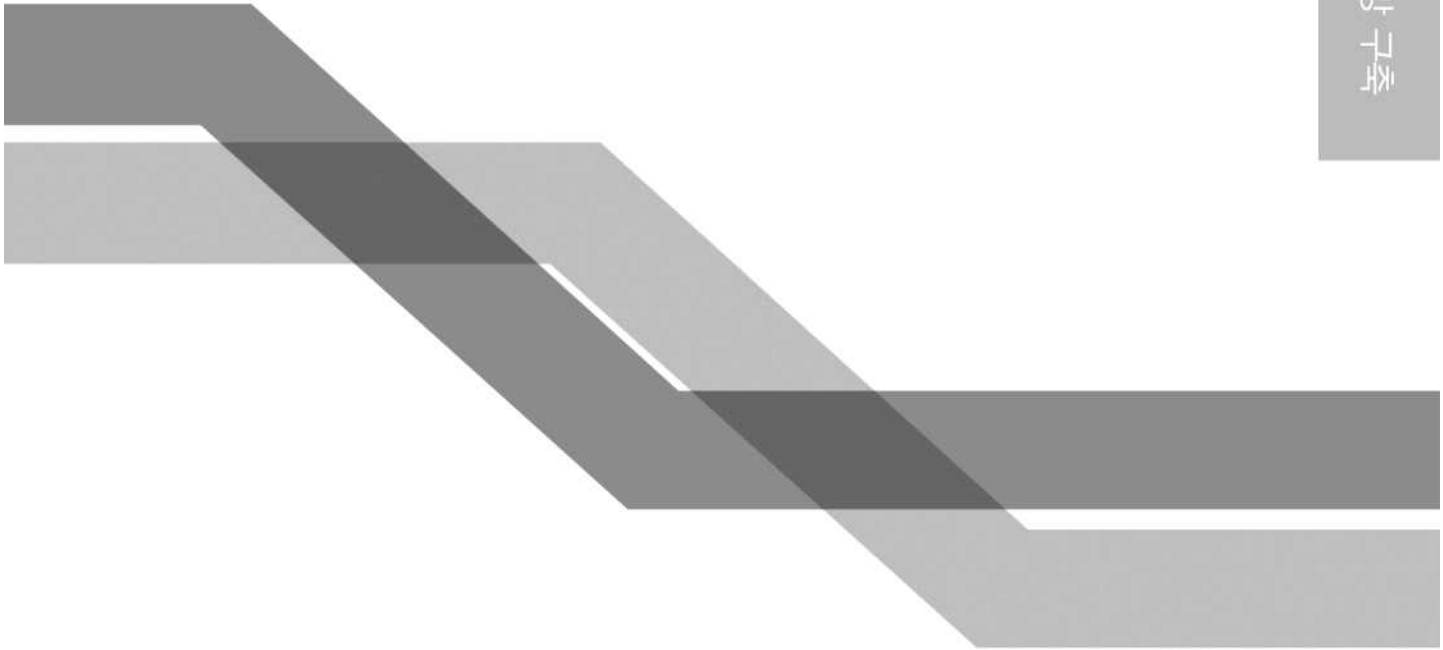


제7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2.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4. 건강한 가정 육성



제7절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1-1.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리 도의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의 4.2%인 79,196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북, 광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 수급자 현황 】

(2017. 12월 기준)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7,082	79,196	50,992	73,106	6,090

수급권자에게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액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지원한다.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다.

-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4인기준 134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4인기준 178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92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빈곤대물림 해소)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4인기준 233만원) 이하인 경우
 - (급여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등
- ▶ (해산·장제급여)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 시 보장급여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43%(4인기준 192만원)이하 수급자
 - (급여내용)
 -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 쌍둥이 600천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가구당 750천원 지급

【 맞춤형 급여 지원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생계급여	75,501	88,568	83,850	79,196
의료급여	84,140	87,848	81,514	77,649
주거급여	66,874	78,950	72,663	68,245
교육급여	14,502	1,982	18,819	16,130
해산·장제급여	2,402	2,252	2,121	2,312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 나윤수,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김 호

나.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1) 자활지원사업

전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자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된다.

도내에는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지역자활센터 23개소가 있다. 이들 센터는 자활근로사업 수행, 자활기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각종 기술·경영지도, 자활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직업교육 등을 통해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자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개소당 연평균 241~27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고, 2014년~2017년까지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등 총 165개의 사업단을 운영해 14,546명의 근로능력과 자활능력을 배양했다.

【 자활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등
2014	3,989	1,474	860	259	1,396
2015	3,934	1,769	560	210	1,395
2016	3,388	1,580	575	214	1,019
2017	3,235	1,355	699	141	1,040

앞으로도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민간의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자립 지원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2) 자산형성지원사업(목돈마련 저축)

전남도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 ▶ **(희망키움통장 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평균 월46만원(4인 기준)
- ▶ **(희망키움통장 I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월10만원
- ▶ **(내일키움통장)**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월10만원) + 정부지원금 평균 월28만원 (장려금+수익금 등)

도는 2014~2017년 통장 가입유지 2,139가구에 국도비 등 13,845백만원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탈빈곤 의지를 고취시키고, 만기 해지 211명에게 취·창업 및 탈수급에 도움을 주었다.

【 희망키움통장 등 가입유지 가구 수 】

(단위 : 가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희망키움통장 I	36	47	70	77
희망키움통장 II	190	322	530	396
내일키움통장	13	114	185	159

2018년 4월부터는 청년(15세~34세) 수급자가 탈수급 및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에 적립하고,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

이다.

도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목돈 마련 저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 나윤수,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이해경

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전남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신속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2006년부터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긴급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도는 2014~2017년까지 위기 상황에 처한 42,059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아내 신속하게 지원하고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연도별 긴급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가구 】

(단위 : 천원, 명)

연도	예산액	지원가구
2014	4,837,401	5,899
2015	7,562,500	11,787
2016	8,000,000	12,052
2017	7,975,000	12,321

【 긴급지원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170.4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22천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6천원/월(6회)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지원		무제한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로 복합지원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 나윤수,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박혜민

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전남도는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의료급여 제도를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1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이재민, 시설입소자 등)과 2종(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제외한 수급권자)으로 16,3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 연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및 예산액 】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예산액
	계	1종	2종	
2014	87,848	88,472	23,274	402,214
2015	83,590	62,841	20,749	402,825
2016	86,472	64,581	22,707	394,706
2017	81,493	61,205	20,288	431,625

의료급여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등에 대한 진료비에 대하여 2017년의 경우 80천명 대상으로 3,919억원을 지원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1종 수급권자(단, 본인부담금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로 매월 1일 6,000원(1인당)을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액이 차감하고 사용 잔액은 매년 말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등 63종을 지원하며, 2014년부터 6,482건 5,456백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하여 도 및 22개 시·군에 43명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하여 밀착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향후 지역적·행정적 제약으로 사례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의 지역 의료기관 입원자 관리를 위하여 도 의료급여관리사를 추가 배치하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 나윤수, 생활지원팀장 최영옥, 담당자 임선화

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남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 140% 이하까지 인정되며, 매월 서비스 이용액의 70~90% 금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10~30%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 기준중위소득 기준 】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120%	1,983	3,377	4,369	5,360	6,352
기준중위소득 140%	2,314	3,940	5,097	6,254	7,411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지원 및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등 16개 사업, 노인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13개 사업, 장애인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에는 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 36개 사업을 운영하여 18,87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10개 제공기관에서 843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했다.

【 연도별 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억원/명)

연도	사업비	이용자 수	일자리 수
2014	127	23,654	955
2015	126	17,869	916
2016	127	19,707	948
2017	148	18,879	843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기관 11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제공인력 5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등 11회를 실시했고, 시·군 공무원 268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매뉴얼 교육 등 4회를 실시했다.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의 정서함양을 위해 1년간 배우거나 습득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제공인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공인력의 자긍심과 자존감 향상에 기여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서비스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사자 및 제공기관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지역복지팀장 정금숙, 담당자 박담비

바. 복지전달체계 개선

1)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

전남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읍면동 복지센터에 찾아와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하여 대상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2017년말 252개 읍면동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2018년까지 전체 297개 읍면동에 설치 운영할 계획 이다.

2)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전남도는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여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 6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등 취약계층의 발굴과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은 물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12,623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43,29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사례관리사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사회복지인력 확충

전남도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282명 및 행정직 재배치 133명 등 사회복지인력 415명을 확충했다.

2018년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 사회복지인력 4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 연도별 사회복지인력 확충 실적 】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	신규 복지직	행정직 재배치
인원	121	32	48	37	64	24	49	40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지역복지팀장 정금숙, 담당자 김미경

사.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시 등 5개 시·군에 7개소의 노숙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관리비 및 개보수 등을 위해 연평균 5,67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시설에는 724명의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117명의 운영인력이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 및 자활에 힘쓰고 있다.

【 노숙인시설 운영 등 지원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14	763	119	6,593	42.6
2015	763	119	5,058	△23.3
2016	718	115	5,532	9.3
2017	724	117	6,212	12.2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복지정책팀장 유영후, 담당자 김희복

1-2.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가.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전남도는 열악한 농어촌 출산환경 개선과 도시로의 원정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9월부터 해남군에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을 운영했고 2018년 5월 강진군에 공공산후조리원 2호점을 추가로 설치했다.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좌욕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간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최상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 산후조리비용의 70%를 감면해 수급자,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산모의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시켰다.

도는 향후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4개소까지 확대하여 전국 출산복지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인원 】

구 분	계	2015	2016	2017
이용인원 (감 면 자)	637명 (391명)	79명 (49명)	275명 (171명)	283명 (171명)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출산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신종현

나.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1년부터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신생아 양육비는 출생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

주한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향후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더불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정에 출산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적기에 제공하여 수혜누락방지와 이용자 편의 제공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연도별 신생아 양육비 지급인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지급인원(명)	14,533	14,714	14,193	12,276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출산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신종현

다. 영유아 및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전남도는 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 형성을 위해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현황 】

구 분	종 류
국가예방 접종(16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기존 예방접종비 중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2014년에 폐지하고, 전액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까지 예방접종 접근성을 향상시켜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영유아기 및 아동기에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하여 평생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앞으로 예방접종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기접종 대상자 관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연도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추진실적 】

(단위 : 천건, %)

구 분	4년 총계	2014	2015	2016	2017
목표량	4,572	1,024	1,117	1,164	1,267
예방접종	4,290	1,035	1,059	1,093	1,102
접종률	93.8	101.1	94.8	93.9	87.0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질병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이에슬

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난임부부 등 모자 보건

2006년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했다.

【 산모·신생아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

(기준 : 2017년)

구 분	서비스 기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정부 지원액	총금액	본인 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최단 5일 ~ 최장 25일	50%이하	618천원	890천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차액
		50%초과~ 60%이하	587천원		
		60%초과~ 80%이하	525천원		
		80%초과 (예외지원)	464천원		

※ 쌍태아 4주(25일)최대 2,600천원, 심태아이상·중증장애인산모 4주(25일) 최대 2,850천원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 의료 시술비 지원하고, 특히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있다.

추진부서 ● 사회복지과장 나윤수, 출산정책팀장 김학송, 담당자 신종현

마. 분만취약지역 전문의료서비스 강화

전남도는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 수가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을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의 감소하여 농어촌 산모의 건강 문제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도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했다.

2016년에는 해남과 함평에 각각 분만산부인과, 외래산부인과를 설치하여, 2018년 현재까지 총 9개소 분만(4개소)·외래(4개소)·소아청소년과(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8,770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용 실적은 분만 793명, 외래진료 37,342명, 소아청소년과 69,525명으로 총 107,660명이 이용했다.

도는 앞으로도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분만·외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설치 현황 】

구 분	2011	2013	2014	2015	2016
분만산부인과	강진의료원	고흥종합병원	영광종합병원		해남종합병원
외래산부인과			진도한국병원 완도대성병원	보성아산병원	함평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완도대성병원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공공보건팀장 박숙경, 담당자 김민지

1-3.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가.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전남도는 도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2016년 3월에 1인가구 전수조사를 거쳐 2016년 9월 26일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했다.

돌봄대상은 1인가구 전수조사시 기초생활수급, 노인재가서비스 등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험군(위험요인 1개)과 고위험군(위험요인 복합)으로 분류하여 선정했다.

고독사 지킴이단원은 돌봄대상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장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무보수 자원봉사자(이·통장, 부녀회장, 의용소방대원, 종교관계자 등)들로 구성했다. 고독사 지킴이단원은 돌봄대상과 1:1 결연을 맺고, 월1회 방문과 주2회 전화를 통해 말벗과 안부살피기를 통해 신변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7년에는 시·군대표 단장(2017. 2.) 및 권역별 간담회(4개 권역, 600여명)를 통해, 돌봄기법 교육과 우수사례 정보를 공유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17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신변이상자 발견신고 17건, 공적서비스 연계 741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돌봄대상과 지킴이단 수에 특정하지 않고 지속 발굴·운영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돌봄대상 : 2,097명(독거노인 1,838명, 중·장년층 251명)
- 지킴이단 : 1,730명(부녀회, 마을리장, 자원봉사자, 종교인)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이복례

나. 기초연금 지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했다.

도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액 이하를 수급대상으로 선정했다.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단독	부부
선정기준액 (만원)	87	132.2	93	148.8	100	160	119	190.4	131	209.6

2014년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2~9.7만원, 부부가구는 월 4~15.5만원, 2015년에는 단독가구 월 2~20.3만원, 부부가구 월 4~32.4만원, 2016년에는 단독가구 월 2~20.4만원, 부부가구 월 4~32.6만원을 지급했다.

2017년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2~20.6만원, 부부가구는 월 4~33만원 지급했으며, 2018년 9월부터 단독가구 월 2~25만원, 부부가구는 월 4~4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인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급자(천명)	314	322	323	332
수급률	83%	82%	81%	81%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이복례

다. 독거노인 돌봄사업

2014년 말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30.6%를 초과했고, 고령화와 핵가족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전남도의 독거노인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안전 확보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교육, 생활실태 파악 등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로 안부를 살피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B)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가정에 대내장비를 설치하여, 고독사 방지, 화재발생,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호출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도 자체사업으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이 취약한 대상자 5,600명을 선정하고 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이 주1~2회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전달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에서 소외되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연도별 독거노인 현황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노인인구	383,808	391,837	398,916	408,451
독거노인(명)	117,503	122,087	121,462	127,982
독거노인 비율	30.6%	31.2%	30.4%	31.3%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이복례

라. 노인 사회활동(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2014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2017년에는 688억원을 투입하여 29,63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을 확대했으며, 지역아동센터 봉사, 주정차질서 계도 봉사, 학교 급식도우미, CCTV 상시관제사업, 취약계층 활동지원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2017년 6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우리 도가 '대상'을 수상하여 5년(2012~201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량	20,503	23,280	27,700	29,632	31,885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김향민

마.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전남도는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인 경로당을 일자리 창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을 지원했다. 단순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던 경로당을 소일거리를 통한 소득창출과 숨겨진 재능을 활용하여 이웃사랑 실천 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지난 2017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19개 시·군 22개소에 66백만 원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살린 텃밭가꾸기, 메주판매 등 6개소에서 6,837천원, 지역업체를 연계한 통발작업, 나물반찬, 김부각만들기 등을 통한 공동작업장에서는 68,135천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총 74,972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8년에도 다양하고 실속 있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해 지역환경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손뜨개, 마을공동 텃밭관리, 메주생산 등 15개 시·군 19개소에 60백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활기찬 노후생활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시설팀장 이명화, 담당자 이영심

바.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전남도는 의료·복지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개 시·군에 120개소의 농어촌 공중목욕장을 운영했다.

매년 공중목욕장에 개소당 20백만원씩 총 2,4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성군, 장흥군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공중목욕장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중목욕장은 761천명으로 해당 농어촌 지역 노인인구수 연 평균 약 3.5회를 이용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매년 100천명이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도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목욕장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 현황 】

(단위 : 건, 천명)

연도	운영 시군	목욕장수	노인 인구수	목욕장 이용인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2014	20	12	384	817	건강체조 및 노년기 건강교육
2015	20	120	392	722	웃음치료, 노래교실, 실버체조
2016	20	120	399	740	근력강화, 스트레칭, 건강상담
2017	20	120	408	761	건강댄스, 요가, 보건교육 등 ※ '17년 기준 100천명 참여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강미정

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

2008년 7월 1일부터 고령 및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재가급여)에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2017년 도에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70,157백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42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4~2018년 현재 16,426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했다.

【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 】

(단위 : 개소)

연도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소계	시설	재가	소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2014	897	281	616	1,087	528	349	29	106	6	69
2015	924	296	628	1,072	532	338	28	98	6	70
2016	990	295	695	1,164	584	358	27	118	6	71
2017	1,020	296	724	1,190	595	369	24	123	6	73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시설팀장 이명화, 담당자 나은경, 양승원

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전남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사례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를 운영했으며, 매년 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①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②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③노인 인식개선사업 ④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다.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는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4개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강화 및 심신치유를 위한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도 학대피해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계도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단위 : 건, 명)

연도	사업추진 실적							
	계	사례신고		상담		교육(회)		일시보호
		학대	일반	학대 사례	일반 사례	신고 의무자	비신고 의무자	
2014	5,629	244	428	3,931	524	135	345	22
2015	6,134	279	343	4,499	471	171	346	25
2016	6,880	297	380	5,045	609	192	331	26
2017	7,569	326	375	5,713	648	168	309	30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복지팀장 이형만, 담당자 박영임

자.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 지원

전남도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급식 등 일상생활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 등 1,459개소 운영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양로시설 10개소에 운영비 5,659백만원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등급외자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 및 요양공동생활 296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47,334백만원, 재가복지시설 1,190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27,315백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 3개소, 증개축 24개소, 개보수 25개소, 장비보강 28개소, 자동개폐장치설치 339개소 등에 16,920백

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해야 하는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정부의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로 기능보강사업 12개소 5,468백만원을 확보하여 치매전담시설 신축 5개소 2,845백만원, 치매전담시설 전환 7개소 2,623백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화재시 어르신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2018개소에 화재안전창문 설치비 227백만원을 지원한다.

【 연도별 사업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1,364	68,350	3,642	34,281	30,427
2015	1,584	60,484	2,000	29,770	28,714
2016	1,396	65,598	1,657	33,614	30,327
2017	1,492	71,662	1,161	32,898	37,603
2018	1,516	154,992	4,488	29,733	46,122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시설팀장 이명화, 담당자 나은경, 이현숙

차. 노인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초고령사회 진입(2014.8.)에 따라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공동생활홈 9개소, 공동급식시설 5개소, 공중목욕탕 3개소 등이 선정되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6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91개소 설치하여 약 1,570명이 이용했다.

※ 홀로 사는 노인 현황(2017. 12월말 기준) : 127,982명
 (남 29,608, 여 98,374) * 도 노인인구 408천명 대비 31.3%

공동생활의 집은 공동거주형과 독립거주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공동거주형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낮에는 경로당, 밤에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독립거주형은 개별적 주거시설(원룸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도는 앞으로도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 해소를 고독사를 예방하고 주거·위생·안전 등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도록 의료·문화·교육·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노인의 복지욕구에 충족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연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4	15	1,020	450	60	510
2015	11	950	415	60	475
2016	6	240		120	120
2017	6	240		120	120
2018	6	240		120	120

※ 2014~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포함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시설팀장 이명화, 담당자 나은경

카.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

전남도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의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36억원을 투입하여 445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사업대상 선정기준으로는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운영,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또한 월평균 전기요금과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경로당 등을 토대로 건물상태(옥상 활용 가능여부, 지붕 소재, 노후도), 마을 협조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추진했다.

※ 공동생활 홈 지정현황 : 191개소(농식품부 9, 도 59, 시·군 123)

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전기요금 걱정없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 연도별 사업현황 】

연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5	50	450		225	225
2016	105	936		468	468
2017	170	1,275		637	638
2018	120	900		450	450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노인시설팀장 이명화, 담당자 나은경

1-4. 장애인 복지증진

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전남도는 근로 능력이 없는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사업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인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는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지원사업의 국비 보조 시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비를 확보하여 월 최고 330시간에서 458시간으로 128시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 담당자 황규연, 노민영

나. 장애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남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1,42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통해 장애인 자립·자활을 도모했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일반형(전일제,시간제), 복지형, 안마사파견, 요양보호사 보조가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062백만원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특수학교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 311명을 위해 ‘청년형 일자리’를 추진하여 청년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실현했다.

특화형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으로 70명을 고용하여 도내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8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 3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도내 직업재활시설은 도(1), 목포(3), 여수(4), 순천(2) 나주, 곡성, 강진, 영암, 해남, 무안, 함평(2) 등 11개 시·군 18개소이고,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등 5개 시·군은 신축 중에 있다. 미설치 시·군은 8개 시·군으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이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을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현황 】

연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2014	14	2,620		393	2,227
2015	15	2,561		417	2,144
2016	17	3,212		465	2,747
2017	18	4,809		974	3,835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장애인재활팀장 박건주, 담당자 채호승

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및 가정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과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전남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총 36개소(법인 20, 개인운영 16), 이용시설 159개소를 운영 지원했다. 생활인원은 1,403명이며 종사자는 615명이다. 또한,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연간 77,437백만 원을 지원했다.

2017년에는 강진군과 곡성군에 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담양군, 곡성군 장흥군 영광군에는 이용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8개소와 이용시설 8개소에 대해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시설수	운영비	입 소 인 원		종 사 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2014	31	20,872	1,298	1,197	601	564
2015	33	21,492	1,362	1,180	630	581
2016	33	23,090	1,372	1,186	680	604
2017	36	24,997	1,403	1,211	694	615

아울러, 도내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16개소,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27개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5개소, 수화통역센터 16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3개소 등 총 159개소가 있다.

도는 앞으로도 생활·이용시설이 없는 시·군에 설치 확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거주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장애인재활팀장 박건주, 담당자 서미애

라.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및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

전남도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22개소에 연간 1,037백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과 기술지원·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500대를 지원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병원, 음식점 등 3천 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담긴 모바일 앱 및 픽토그램 안내도를 개발·보급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모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으로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거점산부인과는 동부권에 목포미즈아이병원, 강진의료원, 서부권에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 여수제일병원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을 장려하고 산부인과 진료시 불편없이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임신·출산·양육 종합매뉴얼’이라는 작은 책자를 마련하여 보급했고,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여성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장애유형별 욕구를 감안하여 ‘공감과 치유탐방’,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장애인 수화교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 담당자 최경순, 황규연

마. 장애인 권익 지원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2006년도에 설치한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 연간 343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으로 장애인 권익증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시설 내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일제 조사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인권침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설치했고,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보급했다. 인권지킴이단은 37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210여명이 활동하며 매 분기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2015년 3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총 18명의 인권침해 장애인에게 일시보호쉼터를 제공했고 쉼터 입소 장애인의 재활상담, 의료, 심리재활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애인인권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 소통·협력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노인장애인과장 윤연화, 장애인복지팀장 박홍근, 담당자 최경순, 서미애

2.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산업 육성

2-1.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했다.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7~'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1,198,384	876,064	86,050	74,185	58,799	54,491	48,795
전남	239,716	176,801	13,646	24,019	9,350	5,937	9,963
비율 (%)	20.0	20.2	15.8	32.3	15.9	10.9	20.4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138개소의 공공보건기관(보건소 17, 보건지소 58, 보건진료소 60, 건강생활지원센터 3)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했다. 특히 섬지역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기능확대형보건지소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3개소는 운영 중이며, 3개소는 신축이다.

장비보강 사업은 의료장비 732개소(보건소 81, 보건지소 260, 보건진료소 387, 건강생활지원센터 4), 보건사업용 차량 39개 보건소에 54대를 지원했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공공보건팀장 박숙경, 담당자 이태희

나.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전남도는 1971년부터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섬 지역 건강지킴이 병원선 운영’사업은 도내 병원선 2척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부권(전남511호) 5개 시·군 77개 도서, 서부권(전남512호) 6개 시·군 89개 도서를 무의도서 135개 도서는 연 4회, 육지와 원거리인 보건진료소만 소재한 31개 도서는 연 1회 병원선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매년 병원선 2척 11개 시·군 166개 도서를 년 5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했고 무의도서 응급환자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일반의약품 10종으로 구성된 상비의약품 151상자를 지원했다.

【 병원선 현황 】

구분(진료권역)	톤 수	눗 트	마력수	건조비(억원)
전남 511호(여수권)	128	15	3,270	21
전남 512호(목포권)	170	16	5,400	45

【 무의도서 순회 진료 실적 】

(단위 : 명)

구 분	진료대상도서	진 료 실 적	
		실 인 원	연 인 원
병 원 선(2척)	166	36,214	88,925

또한 2015년부터 기관 간 협약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을 병원선과 연계하여 ‘동네방네 춤 메들리’, ‘기다려요 뽀기머신’, ‘섬마을 음악다방’ 등 65개 도서 976명의 섬 주민과 함께했다.

도는 2016부터 노인 자살률 및 치매노인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인

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 지역 정신·치매 통합건강관리를 위하여 병원선과 ‘전남광역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전남광역치매센터’를 연계하여 우울증, 치매감별진단검사를 24개 도서 803명에게 실시했고, 그중 77명은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군 보건소에 연계 조치했다.

그 결과 병원선 운영 ⇨ 섬 관리 강화 ⇨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정주여건개선과 보편적 의료보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 유지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하여 의료공공성 확보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공공보건팀장 박숙경, 담당자 김의중

다. 응급의료 기반 구축

전남도는 2006년부터 농어촌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및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지원을 통해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응급의료기관 41개소와 당직의료기관 3개소에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등 24,749백만원을 지원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응급실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약지 병원 5개소에 거점병원 간호사 5명을 파견했다.

전남 동부권의 중증응급환자 치료 및 재난거점병원 역할을 하게 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성가롤로병원이 2016년 8월 추가 선정되어 서부권 목포한국병원과 함께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또한, 거점병원 2개소를 중심으로 취약지역 15개 시·군 27개 병원 간에 응급실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은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 헬기착륙장 건설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11년 9월부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를 운영 중이며 2017년 1월 닥터헬기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교체했고,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3,124백만원 들여 100명 이상 거주 도서에 21개의 헬기착륙장을 신설하는 등 230개의 인계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전 지역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해져 보다 촘촘한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했고, 현재까지 1,040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섬 지역 응급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6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3개소(노화도, 조도, 하의도)는 운영 중이며 3개소(암태도, 가거도, 흥도)는 신축 중이다.

도는 앞으로도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의료관리팀장 김영두, 담당자 박시연, 정혜영

라. 지방의료원의 301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전남도는 2017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301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

‘301네트워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게 One-Stop으로 보건·의료·복지 포괄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내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굴·의뢰한 환자에 대해 지방의료원 취약계층의료지원위원회에서 의뢰 대상자의 지원범위를 심의·결정하면 지방의료원은 외래 및 입원 치료, 가정방문 등 진료를 시행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질병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사례관리를 시행한다.

순천의료원에서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전담간호사 인력을 확보 하여 2017년 205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입원진료 기간 중 입원에 필요한 물품이 없는 경우 입원 kit 지원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공동 간병실을 지원했고, 퇴원하여 사회복귀 시 방문간호, 기타 생활용품 등 실질적 맞춤서비스를 지원했다.

그 결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의료를 기본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대상자 만족도 상승 및 지역사회 복귀가 수월하도록 기여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301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공공보건팀장 박숙경, 담당자 서은숙

2-2.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전남도는 감염병 매개체인 월동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로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3월과 4월에 하수구, 쓰레기장, 가축사육장 등 방역취약지역 15,37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했다

4~5월에는 2주 1회 이상, 6~9월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의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으로 방역효과를 한층 더 높였다.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관리자, 학교 보건교사, 통·반·리장 등 2,855명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했다

과거 2년 동안의 환자 및 보균자와 최근 5년간 장티푸스 유행지역 방문자 및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사업을 실시하고, 설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103건 754명 및 가검물 검사 721건 실시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관리를 위해 해수,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원인균(*Vibrio vulnificus*) 검사 2,340건 실시했고,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기 쉬운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교육 등 홍보를 강화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일본뇌염 감염병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면 주의보(2017.4.4.)를 발령하고,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되면 경보(2017.6.29.)를 발령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해 대형호텔, 병원, 극장, 사무용 빌딩 등 냉각기 가동 건물 327개소의 냉각탑수 등 1,012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85개소에 대해 살균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한 후 사용토록 조치했다.

또한, 전남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장티푸스 보균자를 접촉한 자 또는 유행지역 여행자에 대해 예방접종, 농부·군인 등 야외활동을 빈번히 하는 자에 대해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을 1,550천건 실시했다.

【 2014~2017년 취약계층 예방접종 실적 】

(단위 : 건)

계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노 인 인플루엔자	노 인 폐렴구균
1,550,620	13,302	115,126	1,288,493	133,699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질병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최병록, 김용덕, 이예슬

나.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와 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생애주기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 검진대상 】

- ▶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 ▶ 생애전환기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40세 · 66세
- ▶ 일반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만39세 세대주, 만41세~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 암조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 하위 50%

도는 검진을 향상을 위해 보험공단, 검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후에는 유소견자가 의료기관 치료와 함께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을 연계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

(단위 : 명)

연도	사 업 대 상	검 진 실 적				
		계	영유아	생애전환기	일 반	암조기검진
2014	433,293	360,092	1,450	1,051	8,408	349,183
2015	414,922	404,418	1,248	894	7,043	395,233
2016	435,995	424,923	1,385	883	7,736	414,919
2017	452,609	442,051	1,168	777	7,297	432,809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건강증진팀장 강미정, 담당자 박지혜, 김대준

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소득증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기존 중앙정부 주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인력 운용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 여성어린이특화, 치매,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액 】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비 고
9,640	6,700	8,061	'16년부터 금연사업 예산 분리

1) 금연분야

흡연은 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대표적 건강위험 요인이며,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의 30%, 폐암의 90%가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2014년 담배값 인상,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금연치료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담배값이 인상, 금연구역 확대, 금연 교육·홍보, 지역금연지원센터 운영,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이 강화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금연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6개월 금연 성공률 】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등록자 수	15,139	27,781	16,666	18,741
6개월 금연 성공률	50.7	43.5	45.2	39.2

특히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52,88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라

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시단위 2~5단위, 군단위 2~3만원)을 마련하여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5,6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도는 전남지역금연지원센터와 서비스 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 증중 흡연자 등에 대해서도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연구역 지정현황 ('17.12월 기준) 】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음식점	청사	유치원 초·중 ·고	실내 체육시설	게임장	기타
지정수	52,887	30,630	1,319	1,296	952	821	17,869

2) 영양분야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관리는 국민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건강행태 요인이며, 개인의 다양한 식습관과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강식생활 실천 인식 제고를 위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캠페인 및 보건소 중심 교육 홍보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나트륨 섭취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인 식사만으로 영양관리가 부족한 임산부, 영유아 4,884명을 대상으로 1,65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양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로 빈혈, 저체중·영양불량으로 인한 영유아 성장부진 등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했다.

도는 만성질환 예방 및 효과적인 영양, 식생활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3) 신체활동 분야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체활동 부족은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비감염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심장질환, 당뇨, 일부 암, 고혈압 발병 및 이들 질환에 의한 사망의 위험성을 낮추주며, 비만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준다.

도는 모든 연령에서 탁월한 건강효과를 누리도록 건강지도자 571명 육성하여 노르딕을 활용한 숲길 걷기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소별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동구밖길, 산책로, 해안로 등 걷기코스를 조성·개발하여 전 도민 788천명이 참여토록 걷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건강증진 신체활동 경연대회(2016. 10.)를 개최, 22개 보건소팀 1,000여명의 다문화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으며 스텝박스, 스트레칭밴드, 스포츠 볼 등의 기구를 활용한 3대(어린이, 성인, 노인)발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도 운동 동기 유발을 충분히 촉진시켰다.

도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 활성화 유도와 시·군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 도로, 공원 등 자원 연계하여 친화적 환경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건강증진팀장 강미정, 담당자 서미애, 김대준, 노우정

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

도내 추정 중증정신질환자수는 약 18천여명이며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

전남도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2014년 10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신질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19개 시·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다양한 대상군에 대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을 각각 9개, 14개 센터에서 추진했다.

2015년 3월부터는 3자 통화시스템 구축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으로 자살을 방지토록 했으며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1577-0199)을 실시하는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자살예방사업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우리 도 자살률은 2013년 인구 십만명당 30.8명에서 2016년 29.7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도는 도민과 함께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정신보건팀장 진 미, 담당자 백애영, 박시은

마.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도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환자는 노인의 11.91%인 약 48천명으로 추정된다.

전남도는 2015년에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프로그램 개발과 기술지원, 지역자원조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각 1개소를 임시개소했고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60세 이상 105천명에 대하여 치매검진(선별·진단·감별검사)을 실시했고 10천명의 치매 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금을 매달 3만원씩 지원하는 등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노력했다.

한편, 도내 12개소의 공립요양병원 중 7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고 2016년부터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치추적기 200대와 인식표 1천개를 무료로 보급했다.

그 결과 치매환자 조기 발견·치료, 실종예방 등 치매 인식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 내 치매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 관리로 치매예방 및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정신보건팀장 진 미, 담당자 김원익

바. 급·만성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1) 급성 감염병관리

전남도는 감염병 예방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 시·군 역학조사반 23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4	2015	2016	2017
전국	88,774	91,986	104,028	152,861
전남	5,192	6,118	6,033	7,635
비율	5.84	6.65	5.79	4.99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은 제1군은 A형 간염, 제2군은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제3군은 성홍열, 쯤쯤가무시증, C형간염 등이다.

제1군 감염병 중 세균성질환은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이 99% 이상 유지하고 있고, 감염병 환자 발생 즉시 역학조사, 격리 등 방역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설사환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등 21종 감염병에 대해 47개소 의료기관, 보건소를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017년에는 제2군 감염병의 경우 수두가 61% 증가, 유행성이하선염은 42% 감소했다.

수두환자의 경우 연중 발생하지만 소아감시체계를 통한 분석결과 12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수두는 감염력이 강한데다 겨울철 들어 실내 활동이 늘면서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제3군 감염병은 쓰쓰가무시증이 19% 증가, 비브리오패혈증은 29% 감소했으며, 4군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2014년에 1명에서 2017년에 18명으로 증가했다.

2) 만성 감염병관리

가)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여행의 증가, 성 문화의 개방 등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1985년 12월 해외 근로자가 외국에서 성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을 최초로 우리 도의 경우 2017년말 기준 258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고 감염자 대부분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감염 우려 계층인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4~2017년 56,885명에 대해 에이즈 검진을 실시했다.

예방백신 및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아 스스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주력했다.

나) 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성병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감염 우려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성병검진, 감염자 등록관리, 홍보사업 등의 실시로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성병검진은 성병을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특수업 태부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 정기 검진과 상담을 실시했고 2014~2017년 206,363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다.

【 연도별 성매개감염병 검진실적 】

(단위 : 명)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검진실적	206,363	44,864	51,786	54,780	54,933

다) 결핵 예방관리

만성감염병인 결핵 예방관리 및 조기 퇴치를 위하여 등록환자 관리, BCG 예방접종, 환자 조기발견사업, 주민홍보 교육 등을 중점 실시했고, 환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서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6개월 단독요법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완치율을 향상했다.

【 결핵 BCG 예방접종 실적 】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계	14,371	13,794	13,701	12,366
보 건 소	6,522	4,694	7,100	6,287
의료기관	7,849	9,100	6,601	6,079

2016년 감염병 분야 사망자 229명 중 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81명(79%)이며, 65세이상 결핵 사망은 164명(91%)를 차지하여 고위험군 노인층에 대해 선제적 환자 발견과 예방·치료 목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결핵 전수검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65세 이상 노인 273천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에는 24천명 실시하여 신환자 16명을 발견 등록·치료하고, 가족 등 밀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진행했다.

라) 한센병 예방관리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한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무의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보호시설 지원 등으로 한센병력자의 장애예방과 사회 복귀를 도모했다.

신환자 발견을 위하여 환자·병력자 가족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에 등록하여 치료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정착농원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정착농원의 간이양로시설에 4,029,054천원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양로자들이 입주하여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017년말 한센병 환자는 1,088명으로 국립 소록도병원과 여수애양병원에서 551명이 등록·치료받고 있으며, 정착농원과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537명에 대하여는 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과 여수애양병원 등에서 월 1회 또는 연 2회 이상 전문적인 진료와 투약을 통하여 관리했다.

3)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가) 신종감염병 대응

보건기술의 발달, 방역체계구축, 예방접종 확대 등 다양한 감염병 예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종감염병의 출현, 기존 감염병의 변종발생, 다양한 출입국 경로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동지역에서 유입된 메르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

의 환자와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우리 도에서는 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나 환자 및 접촉자의 신속한 격리·치료 등 적절한 조치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했다.

도는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 1개소 50병상, 도지정 거점병원 6개소, 시·군지정 격리치료시설 42개소를 확보했고, 음압병상은 국립목포병원 10병상, 목포기독병원 3병상, 순천의료원 4병상, 강진의료원 4병상 총 21병상을 확보했고, 접촉자 격리시설은 강진 다산수련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 감시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 의료기관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시·군 주관으로 위기관리훈련을 실시하여 일선기관 업무담당자의 대응역량을 강화했고, 항바이러스제 (6천명분) 및 개인보호구(9천세트) 등 의료물자를 비축 관리하고 있다.

나)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전남도는 국제행사 및 대규모 국내행사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 생물테러 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년 민·관·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22개 시·군에서 격년제로 대규모훈련 1개소, 소규모훈련 10개소가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생물테러 대응역량을 강화했고, 도 및 시·군 보건소에 보호복, 무전기 등 개인보호장비를 비축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물테러 조기인지를 위한 8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의심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질병관리팀장 문권옥, 담당자 최병록, 박준영, 이예슬

2-3. 통합의료 및 한의약산업 기반 확충

가. 통합의료센터 건립

전남도는 통합의학 연구, 교육, 치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 12월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되어, 2017년 10월에 통합의료센터를 완공했다.

통합의료센터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중심의 One-stop 의료시설로서 치료를 향상과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통합의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사업비 252억원(국비 177, 도비 38, 군비 37)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25실 100병상(9,203m²)의 규모로 건립된 통합의료센터에는 한방 내과, 내과, 영상의학과를 개설하여 2017년 12월 개원식을 가졌다.

2016년 12월 12일 통합의학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 원광학원 광주한방병원과 장흥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양방과 한방, 보완 대체요법을 결합한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합의학센터에서는 통합의학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의 교육기능과 임상결과 등을 토대로 한 한국형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만성염증성 질환(자가면역질환) 및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은 양·한방 협진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난치질환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고 통합의료 진단, 처방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업이다.

통합의료의 새로운 진단 치료 패러다임은 기존의학의 진단 치료 원리에

의한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난치질병, 만성질병의 치료법과,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적 저하상태를 효과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는 생리시스템의 이상반응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상반응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치료하고 심신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의료 진료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통합의료병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장흥 통합의료센터 조감도 】

추진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의료팀장 김태령, 담당자 김세희

나. 한의약 산업화기반 구축

전남도는 한방산업을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다.

한방산업은 한방의 과학화, 제품화, 세계화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7,000㎡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184㎡ 규모로

2007년에 (구)남도대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했으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2009년 3월 개원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대구·경북 소속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합병,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승격되어 한방산업진흥원 한약진흥재단으로서 1분원(경북), 2분원(전남, 서울) 141명(전남 한약자원본부 66명)의 인력 구성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국정과제로 토종자원한약재 기반구축 2단계 사업(1단계 : 2012~2016년 80억, 2단계 : 2017~2021년 70억)으로 기준원료선정 및 원료표준화(지역별 토종자원 구입 15품목, 구성성분의 성분프로파일링 및 화학구조 동정 10품목, 기준 및 시험법 밸리데이션 5품목), 본초학적 효능연구 10품목, 기준원료의 공급기반 구축(재배정보 수집 및 기준원료 확보 15품목, 미재배 및 유효성 품목 토종자원 재배법 연구 5품목)등 성과를 거뒀다.

한약제제 현대화(효능평가) 2단계 사업(1단계 : 2011~2014년 10억, 2단계 : 2015~2019년 7억)을 추진하여 특허 4건(진피, 갈근, 백지, 숙지황), 한약제제 효력실험 9품목(오적산, 평위산, 삼소음, 이진탕, 황련해독탕, 반하사심탕, 보중익기탕, 갈근탕, 소청룡탕), 한·양방 약물 상호작용 정보 확보 2품목(오적산, 평위산)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GLP)을 장흥군에 유치(옛 장흥교도소 부지)하여 2017년 국비 95억원의 사업비 확보로 2018년까지 건립 할 계획이며, 2019년 시범 가동 후 한약에 대한 안정성·유효성 검증, 한약재 및 한약(한약제제, 탕약)의 독성평가 연구를 통한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 산업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추진부서 ● 식품의약품과장 박경근, 통합의료팀장 김태령, 담당자 임희전

다. 장흥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지원

전남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검증된 대체의학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분야로서 통합의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통합의학 중심지로 육성을 위한 통합의학박람회를 2010년부터 총 8회(국제 1회 국내 7회) 개최했다.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57, 도비 38, 군비 60, 자체수익 35)을 바탕으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장흥군 안양면 비동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121만명(외국인 48)의 관람객과 46개국 85개 협회·단체, 17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통합의학 정보교류, 진료·체험, 학술대회(한국통합의학회, 오스테오파시학회,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등을 통해 ‘환자중심 미래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홍보,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족단위 관람객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했으며, 121만 명의 관람객 유치로 목표대비 128%를 달성하는 등 국제박람회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타 박람회와 차별화를 위해 통합의학박람회를 관람객 참여형 건강박람회로 운영했고,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개원에 따른 통합진료시스템을 홍보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꿈나무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 등 연령대별 관심 위주 체험관을 구성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청·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험형 박람회로 자리를 잡았다.

68개의 의료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도는 통합의학박람회를 통합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6개의 주제관(현대의학 통합의학관, 한의학 통

합의학관, 보완대체 의학관, 100세 건강관, 꿈나무 건강증진관, 의료산업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했으며, 건강체험관 119천명,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941명, 야외체험(재활승마장) 530명, 2회에 걸친 세미나(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등 관람객 141천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 2017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배치도 】

추진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박경근, 통합의료팀장 김태령, 담당자 김세희

2-4. 식품·위생 안전강화

가. 식품안전관리 강화

국민 소득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한 식품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 식품 관련 업체 지도 점검 등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 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를 확대하고 불량식품의 신속 회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했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및 친절한接客서비스 정착을 위해 지도 점검을 강화했다.

1)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전남도는 국민 소득의 증대와 경제수준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이 대량 생산·공급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건강 지향적인 행태로 변화해 가고 있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가) 위생 점검 강화

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반복 점검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했다.

나) 전문적 계통 점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보관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각 공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기계·기구류 청결, 첨가물 사용 적정여부 등 전문적인 계통 점검을 실시했다.

【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품 목 별								
	과자류	절임 식품	어육 제품	두부류	조미 식품	다류	음료류	장류	기타 면류
2,536	177	506	44	109	272	822	351	180	75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실적 】

(단위 : 건)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시설 기준	성분 규격	보존및유통 기준	첨 가 물 사 용 기 준	표 시 기 준	자 가 품 질 관 리	건 강 진 단 능	기 타	영 업 소 폐 쇄	영 업 정 지	품 목 정 지	과 태 료	시 설 개 수	시 정 지 시
12,999	827	129	32	5	3	144	119	45	350	76	177	162	70	48	294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근,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신영식

2)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전남도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보관·취급 과정과 조리식품의 보관·취급·조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감시

를 강화했다.

특히 국민 다소비식품과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참기름, 고춧가루, 배추김치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20개 품목을 특별관리 식품으로 선정하여 반복·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계절적 성수식품,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등 계통별 발생할 수 있는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조치 함으로써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 식품유통 · 판매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즉석 판매 제조업	식품 소분업	식품 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 냉동·냉장업	용기 포장류	건강 기능 식품 판매업
				소계	식품 자동 판매기	유통 전문 식용 얼음	기타 식품			
10,941	4,481	1,245	271	2,857	2,093	525	239	19	40	2,028

【 식품수거검사 실적 】

(단위 : 건)

검사 건수	부적합 건 수	부적합 식품 내역			행정조치	타시도 통 보
		유통식품	농산물	수산물	품목정지	
16,452	39	34	3	2	17	22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근, 식품안전팀장 양희필, 담당자 양정림

3)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학교·복지시설 등 급식시설에 대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개학 시기와 식중독 발생 취약시기인 5~10월까지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깨끗한 급식 환경 조성 및 영양적으로 건강한 식단 제공을 위해 영양사 등 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했다.

【 집단급식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2,096	724	512	108	138	614

【 집단급식소 지도점검현황 】

(단위 : 건)

점검건수	위반건수	위반내용					행정처분		
		시설기준	건강진단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위생취급불량	기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9,902	99	31	9	23	7	29	33	16	50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근,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신영식

4)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전남도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接客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업자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사회 정서에 반하는 불건전 영업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합동 단속 등 지도 관리를 강화했다.

【 식품접객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위탁 급식영업
35,206	27,798	4,220	1,656	629	581	322

【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

(단위 : 건)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고 발	
		시 설 기 준	업 태 위 반	미 성 년 자 출 입 주 류 판 매	건 강 진 단	유통 기 한 관 련 위 반	위 생 취 급 불 량	기 타	허 가 취 소	영 업 정 지	시 정 기 타	과 태 료		과 징 금
105,896	3,262	833	112	420	323	47	150	1,377	868	610	973	718	93	38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근,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신영식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전남도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적 환경 조성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했다. 총 708개 학교 주변에 1,249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있으며, 169개소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했다.

어린이 등이 쉽게 부정·불량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학부모 등 전담관리원 142명을 위촉하여 시·군 위생담당 공무원과 함께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매년 700건 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규격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수거·폐기토록 했으며, 햄버거, 피자 등을 취급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표시기준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학교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환경을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에서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 즉 영양과 관련된 안전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이 2008년 11.2%에서 2012년 14.7%, 2014년 15.0%, 2016년 16.5%로 매년 증가했다. 소아 비만의 약 40%, 청소년 비만의 약 70%가 성인 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때부터 비만 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비(50%)를 지원받아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2017년말 현재 도내 19개소(2012년 1개소, 2013년 4개소, 2014년 6개소, 2015년 5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 2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어린이 급식소 수를 기준으로 1억원부터 7억원까지의 사업규모로 나뉘어 운영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최소 35개소 미만에서 최대 170개소 이상의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원했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2명부터 14명까지의 영양사 등 급식관련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관할 지역 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순회방문 지도,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교육자료 개발 등 영양관리와 위생안전 컨설팅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도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운영 실태현황 파악과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등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

(단위 : 개소)

계	광역시	기초	종사인력		
			소계	남	여
19	1	18	103	99	4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근, 위생관리팀장 양희필, 담당자 송하철

다. 식중독 예방 및 식음료 안전관리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식중독의 약 90%는 세균성 식중독이 차지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소화기계 감염병과 달리 식중독 균의 존재만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균량을 섭취했을 경우에만 식중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가열·조리와 위생적인 취급으로 식중독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남도는 식중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학교식재료 공급업소, 일반음식점 등을 식중독 취약업소로 지정하고 계절별·시설별 맞춤형 위생교육과 예방 점검을 중점 실시했다.

또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5~10월)에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지수를 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 영업자 등 1,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발송했다.

2014년 이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으로 발생 최소화에 전력 추진할 계획이다.

【 식중독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건수	79	21	17	23	18
인원	859	382	177	136	164

추진부서 ○ 식품의약품과장 박경근,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신영식

라. 음식문화 개선 조기 정착

전남도가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 실천 운동은 국, 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을 다함께 집거나 떠먹는 공동식습관을 집거나 국자를 이용하여 개인별 앞 접시에 덜어 먹거나 개인용 찬기에 담아 위생적으로 먹자는 운동이다.

음식문화개선 실천운동 권장을 위해 시·군에서 활동 중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 66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일반음식점 중 1,446개소를 선정하여 앞 접시 사용 등 덜어 먹기 실천에 대해 모니터링을 2개월마다 실시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조기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용품(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등을 제작·지원했고, 외국 관광객과 취약계층(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의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2017년에 80개소 428개의 입식테이블을 지원했다.

낭비적이고 비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세계 수준의 음식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덜어먹기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스팟 광고를 40초 분량으로 제작하여 MBC, KBS, KBC, CMB 등 지방 TV방송에 홍보를 실시했으며, CBS, PBC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남도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성과로 2014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곤,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김태은

3.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전남

3-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전남도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운영했다.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개소(시·군 8개소, 광역본부 1개소)가 운영 중이며, 총 83명의 취업상담, 직업상담, 경력단절예방 및 창업분야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사업장당 총사업비의 70%까지(최대 5백만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적극적 고용을 위한 여성친화 일손기업 협약, 기업체 여성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청년여성 대상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적성검사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청년여성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2017년 157명이 참가하여 현장에서 7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는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2명을 신규채용 했으며, 창업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

하여 성공적인 창업 시장 진출을 돕고 지역 여성 맞춤형 교육제공을 통해 여성일자리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일자리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여성 취·창업 지원실적 】

(단위 : 명)

연도	개소수 (광역본부)	구직희망 등록여성	취·창업수		
			계	취업자	창업자
2014	7(1)	9,854	6,715	6,694	21
2015	9(1)	11,137	7,225	7,196	29
2016	9(1)	15,667	7,086	7,046	40
2017	9(1)	21,574	8,822	8,810	12

2)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운영

전남도는 가사, 출산 및 육아 후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여성만을 위한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는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해 권역별(목포, 여수, 순천, 나주)로 연 4회 개최했다.

박람회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으로 기업에게는 채용편의를, 취업희망 여성들에게는 현장의 취업 정보로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 여성 일자리박람회 운영실적 】

(단위 : 개소, 명)

연도	참여업체	구 인	면 접	채 용
2014 (4회)	901	2,099	3,113	772
2015 (4회)	852	1,945	2,994	732
2016 (4회)	858	1,709	2,890	686
2017 (4회)	862	1,682	3,151	750



【 2018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유미자, 담당자 안현정

나.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전남도는 양성평등기본법(2015.7.1.시행)에 의거 「전라남도 양성평등기본 조례」를 개정(2015.7.2.시행)했으며, 2016년부터 전라남도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와 동등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5.8.4시행)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2015.7.2., 2016.12.22.시행)하고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는 자치법규, 세출예산단위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조례 및 자치법규 1,056개, 사업과제 1,540개, 중장기계획 47개 등 총 2,643개의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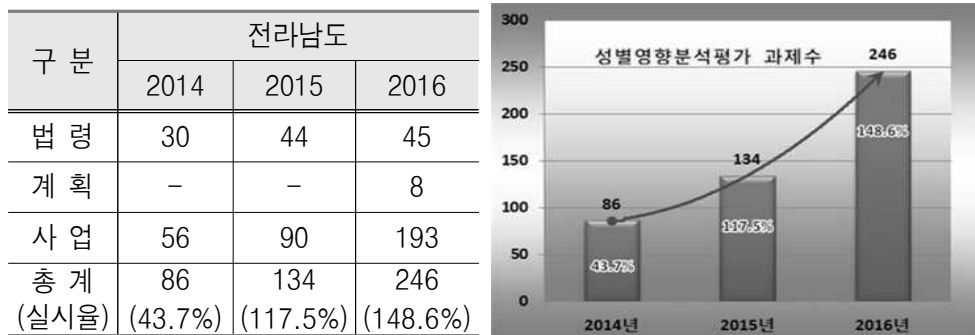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개선의견	개선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분리통계 조사 실시 및 통계자료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에 성별구분란을 만들어 통계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이용자 만족도 및 공동급식 수요조사를 통해 '17년도 사업개선 사항 반영 ○ 마을별 공동급식 추진위원회 구성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 ○ 성별분업이 해체될 수 있도록 당번제 실시 등 남성들의 급식과정 참여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수혜비를 파악 성별분리통계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 총 이용인원 : 15,180명 (38.9%) 여성 9,279명(61.1%), 남성 5,901명 - 사업효과 : 유대강화 49%, 가사경감 25%, 농업 생산성 향상 20% ○ 마을별 위원회 구성 시 부녀회장 등 여성위원 참여 ○ 사업추진 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당번제 실시 권장

그 결과 전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 실시율은 148.6%로 2015년도 실시율(117.5%) 대비 31%p 상승했고 단위사업의 절반(49%)가까이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분석평가 활성화의 기폭계기를 마련했다.

도는 성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



또한, 도 및 시·군 공직자 5,357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에게 성인지적 마인드를 함양시켰으며, 연말에는 양성평등 추진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광양시 외 4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5백만원의 시상금(양성평등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위촉직 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도에서 운영 중인 101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40.6%로 2016년 대비 14.9%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14년) 18.9%, (2015년) 20.5%, (2016년) 25.7%, (2017년) 40.6%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양성평등 정책 발굴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양성평등 시행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유미자, 담당자 강인아

다. 양성평등기움단 운영 활성화

전남도는 여성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여성정책 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서포터즈단」을 구성(2015. 3.) 운영했다.

‘여성·가족이 행복한 전남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서포터즈단은 도내 거주 20세 이상의 여성 10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 권익, 여성농업, 여성경제, 다문화, 여성문화·예술 등 5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여성정책서포터즈단은 양성평등한 전남실현을 위한 정책 모니터링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1건의 정책제안을 했고, 도정 주요 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홍보메신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제1기(2015~2016년) 여성정책서포터즈단은 ‘다문화자녀 지원 제도 개선’등 총 67건의 정책을 제안했으며 그중 48건을 채택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했다.

제2기(2017~2018년)에는 「여성정책서포터즈단」을 「양성평등키움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으며, 5개 분과에서 3개 권역(서부,중부,동부)으로 운영방법도 개선하여 자채간담회 등 오프라인 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2017년에는 제2기 양성평등키움단위촉식, 권역별 간담회 등 5회의 오프라인 활동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급안전돌봄시스템 확대’ 등 34건의 정책제안을 했으며 그중 27건을 채택하여 도정에 반영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전남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수립에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정 역점시책 홍보메신저 역할 및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제2기 양성평등키움단 위촉 현황 】

권역별	위 촉 인 원
서부권	45명(목포16, 무안9, 영암2, 강진4, 장흥5, 해남2, 완도1, 진도3, 신안3)
중부권	23명(나주2, 곡성2, 구례2, 담양2, 영광4, 장성5, 함평3, 화순3)
동부권	32명(순천13, 여수8, 광양4, 고흥4, 보성3)

【 양성평등키움단 정책제안 현황 】

(단위 : 건)

연 도	접 수	채 택	불채택	단순민원	채택률
2015	41	28	7	6	68.2%
2016	26	20	5	1	76.9%
2017	34	27	3	4	79.4%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유미자, 담당자 공정희

라.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전남도에는 2017년말 기준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16개 여성단체 254천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 여성의 권익 신장 및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2014년 7개 단체 57백만원, 2015년 8개 단체 56백만원, 2016년 8개 단체 60백만원, 2017년 8개 단체 58백만원, 2018년 9개 단체 55백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여성대회 개최, 수도권 여성단체 교류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독거노인 사랑 나들이, 취약계층 지원사업, 단체별 특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했다.

16개 단체 254천명

-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 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
-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 전라남도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 한국걸스카우트전남연맹
- 한국여성유권자 전남연맹
-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
- 고향생각주부모임 전남도지회
- 대한조산협회 전남조산사회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남지회
- 전라남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 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여성협의회
- 대한어머니회 전남연합회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여성정책팀장 유미자, 담당자 정지용

3-2. 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944,095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全)계층에게 양육수당 236,183백만원을 지원했다.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실적 】

(단위:명,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보 육 료	57,958	224,503	55,615	238,244	54,099	242,449	53,704	238,899
양육수당	29,210	61,087	27,793	58,682	29,763	58,046	31,385	58,357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손선미, 담당자 서성배, 양일동

가. 공보육 인프라 확충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 및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23개소를 확충하여 103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79개소를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 기반이 취약한 미 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156개소를 지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2018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인증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자질이 높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원 3개소를 운영하여 매년 50여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800여명의 보육교사에게 보수교육(직무교육, 승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비용(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 및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평가인증 및 전남인증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심리검사, 육아관련 정보제공 등 다양한 가정양육 육아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보육어린이집으로 영아전담 42개소, 장애아전문 13개소 및 장애아통합 13개소, 시간연장형 304개소, 방과후 23개소, 휴일보육 8개소, 24시간보육 2개소, 시간제 20개소를 운영 중이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손선미, 담당자 서성배, 양일동, 김은정

나.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로 부모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평가인증율 : ('14년) 67%, ('15년) 68.7%, ('16년) 72%, ('17년) 75.7%

어린이집 평가인증사업의 목적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진행과정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도출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영유아들

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관련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재무회계규칙 교육과 연찬회를 매년 1회씩 실시했으며,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매년 실시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적정한 운영으로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2013년부터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100명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관리 등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손선미, 담당자 서성배, 양일동, 김은정

4. 건강한 가정 육성

4-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강화

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전남도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21개소(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의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했다.

【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남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316	11,502
전국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305,446	294,66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입국초기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과 가족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등 결혼이민자의 정착기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 및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166명의 방문지도사를 통하여 882명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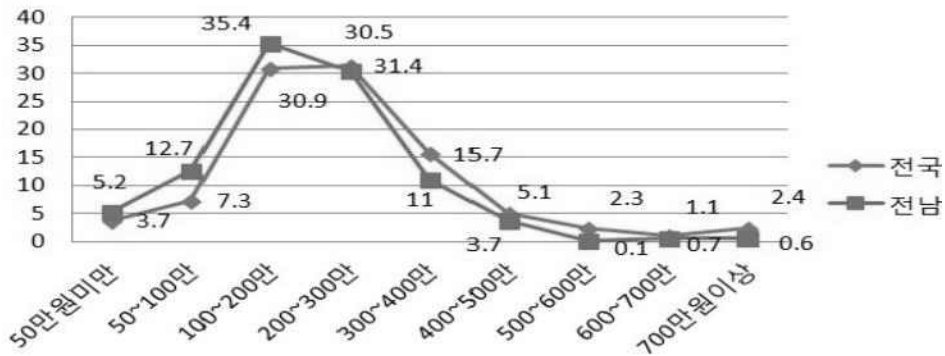
【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남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3,086	11,524
전국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7,693	197,550

또한, 전국 다문화가족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인 가구 41.9%에 비해 전남은 53.3%로 전국 평균에 비해 가구 소득이 많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6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다문화가정에 지원했다. 출산·양육지원(440명), 한국어 교육(211명), 한부모 중고생 자녀 장학금(66명), 초등학생 직업체험(1,095명), 다문화가정 직업교육(109명)을 도내 다문화가정에 제공했다. 2016년부터는 화순전남대병원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3명에게 약 1,0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 다문화가구 월평균 소득 】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김용신, 담당자 최수연

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

전남도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 입국자녀를 대상으로 21개 시·군에서 1,287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지도사 23명이 파견되어 1,306명에게 언어평가 및 한글교육 등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지원했다.

2016년부터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 고취하고 다문화가족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문화가족 한글대회」를 실시했다. 한글대회에서는 한글쓰기, 한국어 말하기, 한글퀴즈 및 축하공연을 마련했으며, 400여명의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이 참석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부부교육·자녀교육·시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가족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족교육, 부부공동체훈련, 통합교육 프로그램 등 공모사업을 통해 7개소에 26백만원을 지원했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김용신, 담당자 최수연

다. 다문화가족 인권보호 강화

전남도는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 보호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을 의무화하고, 결혼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2회 현장방문을 통한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2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의 이해 및 다문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의 지원을 위

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순천로드다문화여성쉼터, 전남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여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본국으로의 출국절차 등을 지원했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김용신, 담당자 김은정

라.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

전남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과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2017년까지 109명이 수료하여 47명이 방과후 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모국어 상담원 양성과정」은 19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13명이 취업했다. 또한, 모국어 능력을 활용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를 채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특성을 살리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다문화팀장 김용신, 담당자 최수연

4.2. 여성·아동·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남도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등 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 전화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을 운영했다.

【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상담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이혼, 부부	가족	개인 신상	기타
2014	7,593	4,005	217	47	21	252	256	486	2,309
2015	7,321	4,529	378	97	52	332	214	375	1,344
2016	9,060	5,448	341	68	65	556	308	666	1,608
2017	10,750	7,325	567	56	168	322	238	843	1,231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에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설치하여 7일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했다.

또한 5%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 전남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현황 】

명 칭	운영기관	개소일	전화번호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성가롤로병원	2010.1.28	061-727-0117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목포중앙병원	2010.9.29	061-285-1375

2) 성폭력 피해 방지 및 상담소 운영

최근 남녀 차별적인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많고 집단화·흉폭화 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전남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2015년 782건에서 2017년 817건으로 2015년 이후 4.5%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호와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을 2016년 255회에서 2017년부터 360회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걸맞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에 힘썼다.

특히 2015년부터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서벽지 등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소별로 의료인, 법조인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연도별 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 】

(단위 : 회, 명)

구 분	계	2015	2016	2017
교육횟수	815	200	255	360
교육인원	29,053	5,826	11,981	11,246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

연번	상담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목포여성상담센터(통합)	목포시 신흥로 83번길5,2층	061-285-1366
2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시 국동어항로 6	061-666-4001
3	전남성폭력상담소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061-755-8033
4	나주여성상담센터	나주시 중앙로 50	061-337-1366
5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담양읍 담양읍 중앙로 18	061-381-1366
6	해남성폭력상담소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30	061-533-9181
7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22-1	061-454-1360
8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함평군 함평읍 외대화길27	061-324-1388
9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목포시 영산로 361	061-283-4767

3) 가정폭력피해방지 및 상담소 운영

전남도는 가정폭력이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신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추진했다.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현황 】

연번	상담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목포여성상담센터(통합)	목포시 신흥로 83번길5,2층	061-285-1366
2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시 동문로 120 3층	061-654-5211
3	순천여성상담센터	순천시 호남길 3	061-753-9900
4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061-761-1254
5	고흥나누리상담센터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62-1,2층	061-832-1360
6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18-1	061-371-1366
7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061-461-1366
8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7	061-454-1365
9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52	061-324-1366
10	영광여성상담센터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길 54-2	061-352-1322

4)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전남도는 가정폭력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 구성원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목포, 여수, 순천, 광양)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및 성폭력피해 여성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도내 2개 시설(목포, 여수)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 일반보호시설은 1년 이내 입소를 원칙으로 한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며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회복 치료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5) 성매매피해자 지원·운영

전남도는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 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 조기개입, 피해자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을 위해 성매매피해 상담소 3개소(목포, 여수, 순천)를 운영했다.

성매매피해 여성 및 성매매 우려가 있는 여성을 시설에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2개소(여수, 순천)를 운영했다.

입소자에게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소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나.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전남도는 아동·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도,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 아동·여성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22명을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역안전망 구축, 폭력예방 주민홍보 및 위기여성·아동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수행한다.

2) 아동안전지도제작 및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아동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안전환경 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봄으로써 범죄 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고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8개 학교에 아동안전지도제작을 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아동·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했다. 이 사업은 여성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캠페인, 위험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도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광양시,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 5개 시·군에 지역토착민으로 구성된 등대지기단이 안전진단, 안전실태조사 및 야간순찰 활동 등을 전개했다.

2016년에는 고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도서지역 공중화장실 25개소에 비상벨시스템 설치하여 범죄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했다.

2017년에는 '내 손안의 스마트 비상벨'이라는 '안심전남' 앱을 전남 지방경찰청과 협력·개발하여, 2017년 8월부터 도민들에게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계	655	162	177	158	158
지역연대 운영	346	86	86	87	87
아동안전지도 제작	213	76	59	39	39
지역안전프로그램 운영	96	-	32	32	32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가족복지팀장 이미향, 담당자 배연원

다. 위기·취약가정 가족기능 회복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전남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3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월 12만원), 중·고등학생자녀 학용품비(연 5만원), 생활지원금(월 3~6만원), 대입자녀 신입생학자금(1백만원 내) 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가 세대주인 가정이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

(단위 : 세대, 명)

구 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세 대	8,342	5,645	2,125	415	157
세대원	20,481	14,132	5,247	773	329

【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 월)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2) 취약·위기가족지원

취약·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광양시·보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조손·미혼 모부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 및 가정폭력·이혼·자살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 가족이다.

지원내용은 사례관리, 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 정보제공 및 지역 사회 자원연계, 자녀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가사지원(키움보듬이 파견) 등으로 2017년 12월말 현재 135세대에 취약·위기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준비 가족에 대한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및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여성상담센터에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현재 976건, 666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혼소송취하 34건, 이혼의사철회 34건 등의 사업성과를 달성했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전남도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및 미혼모자가족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두 5개소로 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

시설유형		시설명	소재지	입소 정원	입소대상	입소기간 (연장가능)
모자가족 복지시설	기본 생활 지원	태화 모자원	목포시 용당 국민로 7	99명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3년 (2년)
		자광 모자원	함평군 함장로 1202-36	60명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 설	기본 생활 지원	성모의 집	목포시 동명 들목로 5-1	12명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 (6월)
	공동 생활 지원	살로메 나눔터	순천시 남제새길 53-43	20명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1년)
		어린엄마 등지	나주시 보현길 9-4	18명		

5)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했다.

현재 도내에는 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6개소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

센터명	운영기관명	소재지	센터장
목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조혜정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 】

센터명	운영기관명	소재지	센터장
여수시 건가·다가통합센터	직영	여수시 좌수영로 369-1	조수현
순천시 건가·다가통합센터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시 중앙로 255	이신숙
나주시 건가·다가통합센터	(사)나주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나주시 예향로 4075	하양진
광양시 건가·다가통합센터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양시 중마로 410	손경화
곡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	광주기톨릭사회복지회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문미선
구례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청암대학교산학협력단	구례군 구례읍 508	류동수
보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한국청소년육성협회 보성지부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186-5	박현영
화순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김종식
장흥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재)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측) 유지재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최선자
강진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재)천주교 사랑의씨든 수녀회	강진군 강진읍 사의재길 41	조성옥
해남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회복지법인두성재단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0	정광선
영암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영암이주여성센터	영암군 상호읍 세가래로 88	송영희
함평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 함평군 새마을회	함평군 함평읍남일길 52	김기영
영광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영광군새마을회	영광군 중앙로 3길 6-11	고봉주
장성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카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장성군 장성읍충무5길 24	양요섭
완도군 건가·다가통합센터	사)행복한센터	완도군 완도읍개포로 34-10	김해용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가족복지팀장 이미향, 담당자 배연원

라.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

전남도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경제·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1)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및 나눔문화 추진

전남·경북간 나눔문화 실천으로 화합과 우의 증진 및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5부터 전라남도↔경상북도↔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개 시·군에서 추천·위촉된 52명의 추진위원을 주축으로 천사프로젝트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양 道간 1,004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아동에게 교차지원 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에 노력했다.

후원자 결연은 정기지원과 일시지원으로 나뉘지며, 정기지원은 아동 100~200명을 선정하여 월 5~1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되며, 일시지원은 목표액 1억원을 달성 후, 2016년부터 지역탐방캠프, 주거지원사업, 드림오케스트라 공연 후원 등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호남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양 道와 어린이재단 간 연장 업무협약을 무기한 체결하여 지속적인 교차 지원과 교류의 틀을 마련했다.

2) 저소득층 아동 문화예술 지원

음악적 관심과 재능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저소득아동들의 소질을 계발하여 그 재능을 향상시키고, 음악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남도와 (사)전남문화예술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 도내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예술분야를 보다 더 적

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5개 시·군에서 600여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전담도는 325백만원을 지원하여, 음악이론은 물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실기교육을 주 2회, 2시간 30분씩 실시했으며, 참여아동의 연령에 맞는 악기를 지원했다. 또한, 매년 지역별 연주회 및 합동 연주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아동의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전담도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 및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375개소 23,269백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내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교사 350명을 채용 파견했다. 또한, 급식비 단가를 3,500원 → 4,000원으로 500원 인상하여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등에 17,09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미 지원 시설을 포함한 총 38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9,752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4) 드림스타트 운영

전담도는 0세~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구에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 관리를 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남아동행복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 전남아동행복마을이란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연계한 기업지원형인 '위스타트 전남아동행복마을'은 2006년도에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후 3개소(광양시, 장흥군, 진도군)를 운영했다. 경기침체로 기업후원 중단 이후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위스타트 사업은 2014년 광양시, 진도군의

드림스타트 개소로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위스타트 사업을 모델로 시범사업을 2개년에 걸쳐 시행하다,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2014년 광양시, 진도군을 마지막으로 도내 전 시·군(22개)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000여명의 아동을 관리했다.

그 결과 2015년 6월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드림스타트사업 보고대회에서 2014년 사업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흥군이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암군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사업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2015년 사업평가 결과 목포시, 2016년 평가결과 고흥군, 보성군, 영암군, 무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5) 가정위탁 및 아동급식지원

전남도는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자립정착금, 대학진학금, 세대 위로금, 명절제수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2,589백만원을 지원했고, 특히 자립정착금을 새로이 지원하여 1인당 100만원을 116명에게 지원했다. 2018년에는 자립정착금을 확대하여 1인당 400만원을 102명에게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여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해당 시·군에서 아동급식위원회 급식지원여부를 확정하여 급식의 질과, 영양, 위생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아동의 가정환경 및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맞벌이가정 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식사제공 또는 밑반찬을 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급식비 단가를 3,500원→4,000원으로 인상하여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대상자 11,580명에게 4,400백만원, 방학중 급식대상자 12,100명에게 4,356백만원,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240명에게 351백만원을 지원했다.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양육비	대학진학자금	자립정착금	세대위로금	명절제수비
2014	2,741	2,265	80	-	279	117
2015	2,587	2,136	70	-	268	113
2016	2,428	1,992	79	-	251	106
2017	2,589	2,029	72	116	262	110
2018	3,221	2,349	90	408	264	110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손선미, 담당자 선수정, 김수경, 유양재

마. 요보호 아동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마련

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전남도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와 가정위탁을 우선으로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저 생활보장과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내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보호아동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도의 아동복지시설은 총23개소(아동양육시설 21, 아동보호치료시설 1, 자립지원시설 1)이며 2017년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생활용돈 등 10종에 대하여 25,825백만원을 지원했다.

【 아동복지시설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시설수(개소)	종사자(명)	보호아동(명)	지원액
2014	23	448	1,172	19,558
2015	23	454	1,166	22,845
2016	23	473	1,137	24,007
2017	23	476	1,099	25,825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30개소의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생활용돈 등 10종에 대하여 2,155백만원을 지원했다.

【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운영 시설수(개소)	지원 시설수(개소)	종사자(명)	보호아동(명)	지원액
2014	34	25	68	175	1,105
2015	29	29	63	155	1,695
2016	29	29	78	155	1,885
2017	30	30	81	166	2,155

* 2015년부터 확대피해아동쉼터(6개소) 별도운영·지원함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전남도는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축(보수)대상 및 노후 수사, 장비부족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20

개소에 증·개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2,193백만원을 지원했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	414	7	856	13	1,557	20	2,193
증개축및 개보수	4	368	5	600	11	1,468	12	2,049
장비보강	1	14	-	-	2	89	8	144
시설신축	-	-	-	-				
소방설비	1	32	2	256				

3) 퇴소아동 자립지원

전남도는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하여 시설퇴소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1회/3백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관 1개소(목포)와 자립형공동생활가정 2개소(나주, 순천)를 운영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전남아동자립지원단을 운영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자립지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자 발굴 등에도 힘쓰고 있다.

4)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대책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유기와 방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아동안전사고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모든 아동이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4년 아동안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기·미아 발생의 예방과 실종아 찾기에 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남도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순천, 목포, 나주)를 위탁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2월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를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17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 5개소에서 1개소를 증설하여 총 6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양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증설하여 총 8개소를 운영·지원한다.

또한,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강화를 통한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운영지침 마련, 신고의무자 및 위기가정 부모교육 등 예방교육·홍보강화, 돌봄시설 지역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에 힘쓰고 있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보육아동팀장 손선미, 담당자 선수정, 김수경

바.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전남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에는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9개소, 숙박이 가능하고 생

활관이 함께 있어 자연과 더불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청소년수련원 14개소,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간단한 수련활동이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 21개소,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수련활동이 가능한 청소년야영장 6개소 및 유스호스텔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단위: 개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48	51	53	55	58
수련관	13	12	9	10	9
수련원	9	10	13	13	14
문화의집	13	15	17	19	21
야영장	7	7	7	6	6
유스호스텔	6	7	7	7	8

이러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전남도는 2015년 4개 수련시설에 7,681백만원, 2016년 4개소에 5,230백만원, 2017년 4개소 7,045백만원, 2018년 3개소 5,539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준공 후 시간이 흘러 시설이 노후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공간을 현대화하고 변화한 청소년활동에 맞는 시설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772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했다.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계	12	12,498	7	6,355	7	8,225	7	8,189
시설확충	4	7,681	4	5,230	4	7,045	3	5,539
기능보강	8	4,817	3	1,125	3	1,180	4	2,650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강대선, 담당자 나원준

사. 학교 밖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 남도와 15개 시·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검정고시, 복교 등 학업복귀 473명, 자격증 취득, 취업 등 사회진입 901명으로 총 1,374명의 성과를 올렸다.

【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현황 】

(단위: 명)

연도	학교 밖 청소년 수	연계인원	지원인원
2015	1,512	705	505
2016	1,303	905	982
2017	1,295	1,494	1,374

또한 전남도는 2015년부터 제도권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차별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2016년도에 204명, 2017년도에는 377명의 미인가대안학교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했고, 2018년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강대선, 담당자 강남중

아.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

전남도는 여성가족부, 여수시와 공동 주최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2017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

장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로 역대 청소년박람회 중 가장 많은 인파인 15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고, ‘꿈꾸는 대로 디자인 하라’라는 박람회 주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주제관은 다양한 진로와 직업군을 탐색하는 진로관, 4차 산업과 연계한 최신 IT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관,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는 행복관,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창의관 총 4개관으로 구성했으며, 1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다양한 전시·체험 부스는 박람회장을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특별강연, 로봇로드쇼, 청소년가요제,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로봇박사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 교수의 특강에는 5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몰려들기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국내외 교류 추진 및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참여활동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강대선, 담당자 강남중

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전남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와 22개시·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가출·성매매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료·법률서비스와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지역 필수 연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 운영 등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CYS-Net이 지역단위 컨트롤 타워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다수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도 CYS-Net이 중심이 되어 우선 지원 및 사례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서비스 지원 실적 】

(단위: 명)

연도	합계	개인 상담	사업수행 프로그램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심리검사	기타
2014	48,953	25,464	326	19,591	596	2,113	863
2015	50,626	27,097	136	20,187	1,003	1,900	303
2016	52,236	28,771	165	20,392	555	2,249	104
2017	58,641	31,850	334	23,881	249	2,146	181

* CYS-Net : Communit Youth Safety-Net

추진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청소년팀장 강대선, 담당자 고일진

